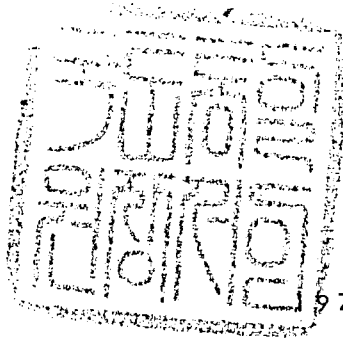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973년 11월 20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김 하 룡

연구원: 김 남 식



中共·蘇聯·北韓의 三角關係의 展望과 對策

目 次

第一章 中·蘇·北韓의 三角關係의 趨勢와 그 歷史的背景	1
1. 蘇聯과 北韓關係	1
2. 中共과 北韓關係	12
第二章 中蘇關係의 現況 및 展望과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19
1. 中蘇關係의 現況	21
(1) 表面相分析	21
(2) 10 全大會를 前後한 中·蘇關係	22
(3) 底流相分析	26
가. 이데올로기의 側面	26
나. 直接的인 軍事對立의 側面	27
다. 「파워·폴리틱스」의 側面	28
2. 中蘇關係의 展望	29
3.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 事例分析	31
4. 最近 北韓의 對中·蘇關係 — 反應度測定	33
5.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展望	40
第三章 中共·蘇聯·北韓 三角關係變化趨勢가 北韓의 對自由 國家政策 및 對南政策에 미칠 影響	43
1. 美國, 日本에 對한 北韓의 立場	43

(1) 美国에 대한 北韓의 立場	43
(2) 日本에 대한 北韓의 立場	45
2. 北韓의 对 U N 戰略	49
(1) 对 U N 態度的 变化	50
(2) 对 U N 政策	51
(3) 单一国号로서의 U N 加入	53
3. 南北 協商에 대한 北韓의 基本立場	55
第四章 우리의 对備策	61
1. 韓國의 对蘇, 对中共政策의 基本方向	61
2. 우리의 对北韓政策	63

第一章 中·蘇·北韓의 三角關係의 趨勢와

그 歷史的 背景

i. 蘇聯과 北韓關係

中國에는 1920年代 初盤 레닌의 東方迂廻戰略에 依해 共產勢力이 침투하였고, 이것은 30餘年の 苦難을 겪은 후에 마르크스·레닌思想을 그들의 體驗에 依해 土着化시킨 것이 毛沢東의 中共이라면, 戰後의 過渡期를 活用하여 北韓形態가 그대로 移植, 괴뢰화된 것이 金日成의 北韓共產主義의 特性이라 할 것이다.

1950年 6月 北韓의 南侵을 소련이 자극했는지에 對해선 아직까지 客觀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 資料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戰後 高의적으로 추구해온 소련의 世界共產主義의 好戰적인 膨脹主義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毛沢東軍이 中國本土를 장악한 것은 東部亞細亞에서의 共產革命의 可能性을 증가시켰으며, 中國에서의 革命完成은 韓半島에 對한 共產化를 소련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였다. 1950年 중반에 이르러서는 인도지나에서 大勢가 곧장 越盟에게 유리하게 전환될것 같은 징조가 보였으며 한반도에선 北韓의 士氣가 드높았다. 유럽에서 즈다노프路線의 失敗가 1949年까지 소련의 평화공세를 가져오게 했다면, 北韓의 남침은 아시아에서 스탈린의 好戰性的의 마지막 발악으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에서의 經驗은 소련의 外交政策의 새로운 方向設定, 즉 1975年 스탈린의 죽음에 의해 조급해지고 용이해진 再方向決定을 完全히 가져다 주었다.

武力을 통한 共產主義 膨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韓國 戰爭에 대한 美國의 단호한 결의는 스탈린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政策變更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平和共存 政策設定의 動機가 되었다.

1950年代 後半에 이르러 소련의 관심은 共產主義 膨脹이 한때 고무적으로 展望되었던 韓國이나 越南같은 지역에서 점차 옮겨져 地域 共產主義者들이 아닌 民統主義者들과 비교적 온건한 政權이 집권하고 있는 新生 獨立國 및 獨立을 곧 얻게 될 나라들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 新生國에 대해 中蘇間의 포섭경쟁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소련으로 하여금 北韓을 世界共產革命運動의 전초기지라 하는 종전에 가졌던 관심을 더 이상 保持할 수 없게 하였으며, 北韓으로서도 더 이상 소련의 관심을 끌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다.

1950年代에 소련이 北韓에게 준 차관의 정확한 총액은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7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同時期에 印度를 제외한 어느 제3世界國家에게 준 원조보다 많다. 그리고 이것은 北韓의 전후 복구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韓國戰爭이 계속되는 동안 소련은 北韓에 대해서 열성적인 지지

를 보였고, 休戰後에도 그 빈도가 늘어졌지만 계속해서 北韓의 發展에 환호를 보였다. 그러나 表面的인 友誼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国内政策을 둘러싼 不和로 1956年부터 소련과 北韓間에는 긴장이 싹텃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1956年 4月 北韓勞動黨 3次黨大會에 옵서버로 참석했던 브레즈베프는 당시 計劃中이던 北韓의 5個年計劃에 있어서 工業化의 중점이 무엇인가를 묻기도 하고, 北韓 勞動黨內에서 個人崇拜에 대한 비판을 加했다는 것이다. 결국 소련은 工業化의 속도와 같은 複雜한 문제들에 대해 自發的인 忠告를 할만큼 과거 수년동안 北韓의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다. 한편 個人崇拜은 第20次 소련 共產黨大會後 數個月동안 世界共產主義政治의 重要한 문제였으며, 소련의 대변인들은 이 總會에서 모든 共產黨들이 反스탈린화를 이행할 것을 促求했었다. 이것은 많은 共產國家들에게 国内的 混亂을 야기시켰으며, 中共과 北韓도 이런 狀態에 있었던 것이 確實하다.

그러나 당시 브레즈베프의 소련 共產黨內에서의 지위나 영향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은채, 5個年計劃은 金日成의 구상이기 때문에 金日成 自身이 이 計劃이 進行되는 동안 모스크바를 5차례나 방문하여 소련의 지원을 얻어들일 수가 있었다.

中·蘇間의 적대관계의 노출은 불가피하게 北韓과 소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北韓의 指導層은 당초에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中共과 소련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비록 1945年 金日成이 政權을 樹立하고 자기체제의 權座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가호에 기인하지만, 1950年代의 그의 지도체제의 存続은 中共의 德分으로 돌렸다. 또한 비록 소련이 韓國動亂中에 그리고 그후에 北韓의 軍事戰略에 절대적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戰爭이 끝난후 中共軍이 北韓에 駐屯했던 수년동안 北韓軍의 現代化에 끼친 中共의 영향은 그에 못지 않게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한편 中共은 北韓의 1次 5個年 計劃동안 北韓이 받은 對外援助의 3分の1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中共이 빈약한 財源으로 北韓의 對外援助의 31% 담당하는데 비해 소련은 49%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곧 中共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中蘇紛爭의 초기 단계에서 金日成은 嚴格한 中立的 位置를 扶했다. 中蘇理念紛爭이 表面化되기 전인 1955年에 金은 主体概念을 강조 하였는데 이것은 中共과 소련을 의식하고 있었던 反應인것 같다. 그러나 1960年부터 北韓은 서서히 中共側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 理由는 天性的으로 호전적인 金이 統一에 대해 느낀 좌절감, 韓國에 強力한 軍事政權의 등장등 一連의 狀況은 그를 親中共의 으로 끌리게 만들었다. 즉 후르시초프의 修正主義 보다 毛沢東의 호전적인 世界革命接近策에 好感을 갖게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62年 가을 中共·印度間의 國境紛爭에서 보인 후르시초프의 政策과, 쿠바사태에 보인 소련의 태도, 그리고 1963년 여름 모스크

바에서 조인된 核実験禁止条約等に 반발하게 되었다. 이같은 事態는 北韓의 中立路線을 동요시켰으며 金日成으로 하여금 中共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유도했다. 또한 후르시초프의 관심이 世界 餘他地域으로 쏠으므로써 고의적으로 東아시아에 對한 外交的 介入을 회피하려는 戰略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할수 있다. 예컨대 1963年에서 64年까지의 越盟에 對한 소련의 원조는 심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狀況은 北韓의 軍事的 要求를 전제로 할때 金日成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北韓이 中共과 密着하는 또다른 이유는 1962~63年까지 소련의 東歐同盟國 共產大會에서 北韓代表團이 받은 ฟู대 접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던 마지막 몇년간은 北韓과 소련관계가 점점 긴장되어가던 시기였다. 援助는 거의 中斷되었고 무기 공여 또한 끊어졌다. 이 무렵 北韓의 公式發表는 中共側에 好意的이었으며 소련 指導層에 對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北韓의 논박에 對해 干渉하기를 한사코 피했다. 소련 言論은 이 기간에 北韓에 對한 보도에 干渉 制限을 받기는 했지만 北韓側에 對해 公同연한 對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60年代 初盤 北韓과 소련 간의 긴장에 對해서는 兩側相方에 責任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65年 兩側의 긴장완화에 對해서는 소련이 이니셔티브를 잡게 되었던 것은 分明하다. 即1964年 후르시초프의 실각으로 코시킨의 極東訪問이 있는지 4個月만

에 소련의 새로운 對北韓接近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越南戰에 對한 美國의 擴大介入과 때를 같이한 코시킨의 4日間에 걸친 하노이 방문은 세계이목을 集中시켰으며, 이와 함께 그의 3日 일반이 걸린 平壤訪問은 兩側間의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코시킨의 平壤訪問 직후 經濟 및 武器協定이 체결되었으며,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가 급속히 膨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측에서 볼때 이것은 政策自体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外交方式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소련이 전에 비해 韓國問題를 보다 높은 優先順位에 두지는 않았다. 또한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힘의 均衡 또는 有關強大國들이 韓國問題의 해결을 허용할 때까지 韓國에서의 어떠한 問題도 未決狀態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中心的인 立場을 변경하지도 않고 있었다. 소련은 후르시초프下에서 보다 그 후계자들에게서도 韓國問題解決을 위한 신중한 이니셔티브를 取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認定했고, 조장시켜온 소련과 北韓關係의 긴장을 제거해야만 되었다. 여기에 1965年 2月 코시킨의 北韓訪問의 目的이 있었다. 이것을 北韓側에서 보자면 北韓은 많은 고려 끝에 코시킨의 제안에 호의적인 反應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北韓과 中共間의 화목의 시대는 中共經濟가 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時期였으며, 그 당시 中共은 소련을 代身하여 北韓에 對한 援助國이 될 수는 없었다. 그 結果 1961年에 시작된 7個年計劃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채 1970年까지 연장되었고, 거기다 보다 번

영하면서 단호하게 反共路線을 걷고 있는 韓國으로 부터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때라 北韓은 現代武器가 심히 고갈되고 있었다. 한편 中共은 文化革命 직전에 점차 國內問題에 관심을 돌리므로써 北韓側으로서는 中共과의 同盟관계가 점점 무용한 것이 되었다. 지나친 親中共政策에는 여러가지 不利한 負擔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는 1960年에는 北韓이 받은 海外援助의 約 20%를 제공했던 東歐諸国들을 包含한 나머지 共產世界로 부터 北韓이 고립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北韓으로 하여금 소련과의 보다 우의있는 관계개선을 必要하게 만들었다.

北韓에 있어서의 소련의 영향력은 코시킨 방문이후 점차 中共의 영향력을 代替하게 되었다.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同盟国이었던 北韓의 離脫에 대한 中共의 초조감은 잠시동안 中共과 北韓간의 긴장된 관계를 가져오게 했으며, 文化革命의 호전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긴장을 확대시켰다. 1967年初 北京의 과격파 선동자들은 金日成의 몰락에 関한 소문을 퍼뜨렸으며 金日成을 修正主義者라고 묘사한 포스타를 벽에 붙이기도 했다. 文化革命기간에 中共과 北韓은 大使館을 철폐하는 사태로 발전 악화되었다. 그러나 1969年 文化革命이 막을 내리므로써 北韓代表團들이 北京에 다시 파견되었으며 1970年 4月 周恩来가 이끈 代表團들이 平壤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속되었던 北韓에 대한 소련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그후 몇년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1971년까지 北韓이 保有한 무기의 거의 전부
가 소련제였던 것으로도 평가할수 있다. 소련이 北韓內에 50個
의 主要企業들의 건설을 도와줌으로써 소련의 經濟援助는 연장된
7個年計劃의 마지막段階에서 重要な 役割을 수행했다. 1970年
소련과 北韓과의 貿易去來額은 약 7 억불로 北韓의 貿易量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1 ~ 72年 世界外交무대에 極的인 전환이 있기에 앞서 소련
은 第2차世界大戰後 10年間に 걸쳐 北韓에서 거졌던 그들의 힘
을 되찾았다. 소련은 스탈린時代나 후르시초프時代처럼 北韓을 다
룰 수는 없었으나 平壤 역시 모스크바가 찬성하지 않 모험을
저지를 수는 없게 되었다.

韓半島의 統一에 관한 소련의 態度는 주기적으로 변했었다.

1950年 동란당시는 한반도의 무력을 통한 적화를 기도했으나 이
것이 좌절되자 1950年代 後半부터 韓國統一은 平和的方式에 의거
하여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關係로 소련은 革命
的 方式 보다는 平和的인 接近을 강조하는 北韓의 表明에 대해서
항상 열성적인 反應을 보여 왔다. 例컨데 1968年 1月 金新朝事
件은 소련 言論들에 의해 칭찬을 받지 못했다. 또한 1970年
11月 勞動黨大會에서의 金日成의 연설, 즉 統一에 先行되는 南韓
에서의 「革命的 鬪爭」과 이러한 鬪爭을 支援해야 할 北韓의 義
務와 責任의 必要性을 강조한 金日成의 연설은 소련에서는 거의 주의
를 모으지 못했다

反面에 南北韓의 軍縮, 交流 같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方案인 1971年 4月 北韓의 平和統一 8個項은 즉각적인 支持를 받았다. 1971年 9月부터 시작된 南北赤十字會談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소련의 極東政策이 美·中共의 接近을 견제하고 日本을 소련측에 묶어 놓고, 印度를 소련 쪽으로 끌려는 對中孤立政策의 일환에서 시발되고 있으며, 極東에서의 현상고정화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닉슨大統領이 訪中中이던 1972年 2月 브레즈네프는 許談과의 회담에서 「平和的 統一」을 시도하는 金日成의 主張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이것은 1971年 레어드 國防長官의 訪韓에 대해 이즈베스차紙는 有力한 韓國問題專門家は 韓國화가 越南화와 마찬가지로 菅·독트린의 연장일 뿐이며 韓國問題의 現實的인 觀點에서 볼때 完全히 기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진정 韓國統一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메리케이트한 問題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韓國의 統一이라고 하는 것이 共產主義下에서 또는 장래 共產化될 그런만한 可能性을 지닌 채 統一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련은 統一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統一이 만일 革命性이나 또는 理念的인 소득없이 兩側의 形式的인 結合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라면 약삭빠른 계산이 作用하게 될 것이다. 韓國問題는 지난 60年代 中共의 영향력 封鎖를 主目標로 하고 있었던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다른 戰略과 서로 얽혀 있다. 韓國分斷은 越南의 分斷과 마찬가지로

이런데 있어서는 수년동안 모스크바에게는 이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韓國의 分斷은 美中共關係의 개선에 장벽이 되어왔으며 長期的으로 中共孤立을 지속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련이 韓國統一을 선전으로만 이용하고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독일의 統一이 유럽의 위협이 될 거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韓國의 統一이 소련의 安保에 주는 위협은 極東에 있어서의 소련의 방위상태를 전제로 할때 오늘날에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련으로서는 統一된 韓國은 政治的 危脅을 가중시킬 것이다. 70年代에 들어 金日成은 中共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이것은 最近 北韓의 對外文化活動이 中共을 업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소련이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地政學的으로 中共과 北韓은 沿하여 있고 傳統的으로 北韓이 中國文化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는 것이 이같은 사향을 뒷받침해 준다. 美中共接近의 썩기를 日本에 놓기 위해 그로미코外相을 日本에 보냈으나 그 효과는 의심스러울 만큼, 日本은 「北京 러쉬」에 바빠 中共과 먼저 國交正常化를 시도해서 드디어 실현하고 말았다. 최근 사향은 極東地域에서 美, 日, 中共, 蘇聯의 強大國間의 勢力 再編成에 의한 勢力均衡의 必要性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蘇聯이 中共孤立과 美國의 퇴진에 의한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꾸려는 시도에서 亞細亞集團安保의 構想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美中共의 접근, 中共의 國交正常化는 소련

으로 하여금, 베르린問題의 타결, SALT 협정 등 일련의 사항에서 西方側에 적잖은 양보를 했고, 1973年 6月에 실현하게된 유럽安保會議은 소련의 주도에 의해 실현되었지만 사실상 소련은 極東地域에 대한 소련安保의 중요성과 아시아의 進出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제반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蘇聯은 北韓이 지나치게 中共에 치우치고 있다면 北韓을 說得하는 手段으로 크나큰 부담을 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이제 中共의 제1의 적이 소련으로 表面化되고 소련이 中共을 孤立시키기 위해 아시아의 전략망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脫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그 효용도와 戰略的 價值가 높은 아시아 國家들의 포섭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主要對象은 韓國과 대만이 제1차적 目標가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소련이 韓國과 긴장완화를 도모하여 동해, 남해안을 통과하여 인도양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된다면 帝政러시아時代부터 소련의 숙망이었던 아시아 진출의 꿈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인도와 日本을 包含한 아시아 主要地域의 전략망을 확보함으로써 中共孤立의 시도가 보다 具体化된다는 事實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韓國의 北方外交에 있어서의 積極外交에 好意的인 反應을 보여오고 있는 蘇聯의 戰略一部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련이 韓國과 긴장완화의 關係가 조성되면 될수록 中共과 北韓關係는 密着될 것이며 당분간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 볼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中共이 소련을 경계하려는 시도에서 北韓을 감싼다해도 中共의

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北韓이 極東에서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極東情勢를 제아무리 의면하려고 해도 再編되고 있는 이 지역의 國際情勢가 현상固定化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할것 같으면 北韓과 中共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孤立姿勢를 견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北韓이 7個年計劃을 3年이나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면서도 다시 6個年計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소련의 힘에 영향을 받는바가 많을 것이다.

2. 中共과 北韓關係

옛날 中國人들은 韓中關係를 순치의 關係로 비유해 韓國을 이를 보호키 위한 입술로 간주했다. 2차대전의 종말과 中國大陸의 共產化는 1949年 中共이 美國의 第一의 敵으로 단정 선언하였다.

1950年初 맥아더 장군의 메시지에서 日本을 再武裝시킬 의도를 암시한 때부터 中共은 순치關係란 의미를 再認識하기에 이르렀다. 毛沢東은 1949年12月~50年2月 사이의 長期間에 걸친 스탈린과의 승강이 끝에 스탈린을 설득하여 中蘇友好協力條約의 성공은 이 같은 日本의 復活可能性에 對備키 위한 반사적 조치였다. 적어도 1937年부터 45년까지의 戰爭에 대한 기억은 中國人들의 日本에 對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日本의 復活은 달갑지 않은 위협이며 더욱이 美國의 支援을 업은 日本의 재기는 한층 위협스럽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1945年부터 소련의 指揮를 받은 金日成體制는 北韓内の 延安派

와 中共支持者들을 支配했고, 北韓을 蘇聯의 위성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傳統的으로 漢文化圈에 속해 왔다고 간주하고 있던 中共指導者들에게는 그저 넘겨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戰略적으로 민활한 東北亞의 地域的 特性과 中·蘇同盟關係에서 소련의 우월한 힘이 차지하는 엄연한 事實등의 現實的인 여건에 따라 毛沢東은 1949 ~ 50年 사이에 東北亞에 대한 主導權을 스탈린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고 그 代身 東南亞에 對한 영향력의 主導權을 스탈린으로 부터 양해받은 것으로 그쳐야 했다.

1950年 1月 에치슨 聲明에 의해 中蘇는 美國이 韓國의 방어를 위해 위험스러운 戰爭을 다시 遂行하지 않을 것으로 展望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추측이 될 것이다. 統韓은 金日成의 擘畫 관심사였지만 이런 관점에서선 中蘇는 北韓의 주도에 의한 武力統一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1950年初에 北滿州 綏 도를 利用하여 蘇聯의 重裝備가 北韓으로 輸送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中共軍 휘하에 있던 韓人兵力을 이 무렵 北韓에 넘겨 주었다. 이같은 주도면밀한 北韓의 남침은 美國의 江景노선에 부딪쳐 共產圈內의 견해차이를 露呈시켰을 것이다. 이같은 狀況에서 38度線을 넘어 北上하는 UN軍과 韓國軍은 中共本土에 對한 安 保에 심한 위협을 주게 되었고, 이때문에 中共이 韓國戰에 介入하 게된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韓國戰爭으로 美國을 비롯한 UN 軍의 強力한 火力部隊와 직접 對決함으로써 中共이 年前에 中国本 土에서 蔣介石軍과의 싸움에서 이긴 위신을 손상시키는바 되고, 極

東에서의 일격에 의한 共產革命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너무나 따르는 負擔이 많다는 事實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때문에 軍事的 敗北를 政治的으로 만회하려는 戰略的 轉換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韓國戰爭이 끝난 後에도 中共은 1958年까지 相當 規模의 軍隊를 北韓에 주둔시켰으며, 이것은 北韓軍의 現代化에 많은 공헌을 끼쳤고, 北韓을 소련에서 中共쪽으로 기울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 1956年 2月の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 직후 金日成에 대한 도전의 고비를 넘기고, 1958年까지는 노동당내의 주요세력이던 延安派를 숙청한 다음, 中蘇 雙方으로 부터 자신의 独自の인 위치를 확보키 위해 金日成은 자기 체제의 政治權力 및 政治的 獨立을 增大시켰던 것이다. 1958年 中共軍의 완전철수는 이러한 金日成의 政治作業을 促進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같은 사태의 변화는 당시 있었던 中共의 主要한 戰略變更과 部分的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61年 5月 韓國의 5.16 革命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中共이 1961年 6月 11日 北韓과의 同盟協定에 加入했을때의 主要한 이유는 韓國에서의 政治的 變革에서라기 보다는 그보다 5일 앞서 加入된 소련과 北韓과의 同盟條約의 反應으로 볼 수 있다. 1961年 알바니아問題에 對해서 北韓은 中共과 同盟보조를 取했지만, 中蘇兩國의 어느 한쪽으로 傾향하지는 않았다.

1965年 中共의 越南前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國際統一戰線의 형성에 對한 미온적인 태도는 확실히 中共과 北韓關係를 소원시켰

으며, 이것은 表面的으로 金日成과 越盟이 自主路線을 표방하게 된 동기가 될것이다. 그로因해 1966年부터 시작된 文化革命은 兩側關係를 더욱 惡化시켜 양측 大使를 소환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갔으나, 1969年 10月 1日 中共政權 成立記念日에 崔庸健의 파견, 1970年 4月 周恩來의 평양방문은 兩側關係를 호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이다.

최근 中共의 對北韓 姿勢는 하노이와는 다르다. 北韓에 對한 中共의 견해는 北韓의 統一에 의한 美軍철수가 아닌 美軍의 일방적인 철수는 韓國에 힘의 空白이 된다 할지라도 中立化될 수 없고 日本이 진공상태를 보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성격을 지닌 지역인 것으로 본 또한 中共의 對隣接國 政策이 70年代에 들어서 平和와 戰爭의 二重概念에 의거하여 전개되고 있다. 즉 相對國家의 體制에는 거의 관계없이 政治, 經濟, 社會的 安定을 도모하고 있는 國家에 대해서는 平和 5原則에 입각한 平和共存을 取하고 있으나, 相對國의 政治, 經濟, 社會 등 제반사항이 不安한 地域에 대해서는 人民解放戰爭戰略으로 임해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中共은 인도지나 반도에 對해서는 人民戰爭 戰略으로 임해 올것이며 韓國에 對해서는 平和共存으로 임해 올것이지만 現在 北韓이 中蘇 사이에 서서 줄다리기 外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련측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나 호전성때문에 韓國을 의식적으로 外面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傳統的인 中國의 外交概念이 遠以制遠나 遠交近攻法에 의해 처리되어 왔는지 現中共도 國境概念을 內境과 外

境 (Inner Frontier, Outer Frontier) 概念을 가지고 있다. 內境은 實質的으로 中共의 統治權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지만 外境은 傳統的으로 中國文化圈에 속해 中國의 영향을 받아왔던 地域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中共 스타일의 政權을 成立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不可能할때는 최소한 완충지대 (Buffer State) 화하여 中共의 安保를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려는 자세로 임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中共은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中共을 적대하지 않는 中立地帶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 의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毛沢東의 바로 다음의 수준에서 對內政治는 물론 對外政策을 總括하고 있는자인 周恩來는 現對韓政策에 몇가지 目標을 두고 있는 것 같다. ① 北韓의 日本에 對한 그리고 美國에 對한 韓國羣의 全面的인 韓國化 方針에 대한 警戒심을 利用하자는 것으로 이는 周가 소련주변에 形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경제조직망의 一部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② 周는 統韓目標에 對해 政治的 接近方式으로 지향하는 北韓의 現方針을 고무하고 격려하는데 그는 이것을 台灣解放政策과 같이 長期的인 問題로 보는 것이다. ③ 周恩來는 미군철수후 日本勢力이 美國을 代替하여 韓國에 定着할 여유를 주지 않고, 政治戰略에서 武裝攻勢 戰略으로 전환하여 무모한 도발을 일으켜 6.25 事變같은 金日成의 모험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美国과 맞서 다시 中共이 韓半島에서 싸우게 될 지도 모르며, 이것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소련과 기나긴 國境線을 따라 대치하면서 韓國에서도 대치해야 되기 때문이다. 닉슨. 周聲明은 「同地域에서의 긴장이 緩和됨에 따라」 美国은 대만으로 부터 철수한다는 약속을 明示하므로써 中共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現狀固定을 더 바라도록 하는 動機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관점에서 볼때 中共은 7. 4 共同聲明에 응하도록 北韓을 조종하였는지도 모른다. ④ 周恩來는 美国이 수락한 平和原則이 대만, 印支와 함께 한국에서 美国 주둔을 反對하는 立場을 취함으로써 美軍의 철수를 촉진시킬 것을 원할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限 韓国内 日本勢力과 北韓内에 소련 勢力의 증대문제 및 전쟁등을 피하도록 한국정세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形態로든지 美国의 이해를 얻으려는 努力을 할 것이다. ⑤ 周恩來는 日本의 最大利益이 소련 보다는 中共과 韓國보다는 北韓과의 화해를 추구하는데 있음을 일본에 대해 說得하려는 그의 원대한 計劃의 일환으로써 中共의 政策聲明등을 원용하여 日本 對韓 政策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아시아로부터 美軍의 철수에 따라 아시아에 부분적인 힘의 공백상태가 생길 경우 그것이 어느 一國의 一方意圖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다. 70年代에 들어 予則할 수 없을만큼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추이에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우리政府는 그동안 北方外交에 積極的인 방안을 挾하고 아울러 共產國家와의 開放外交를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껏 中共은 한국 긴장緩和 자세에 대해 何等의 공식태도

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결국 中共의 對韓政策과 한국 統一問題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美·中共관계와 日本·中共關係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대만問題의 진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中共은 계속 北韓을 越巒과 같은 方向으로 北韓의 對外關係를 계속 조종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中共外交政策이 부딪치게 될 어려운 問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第二章 中蘇關係의 現況 및 展望과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는 北韓의 自主路線을 影태케한 主要要因이다. 中·蘇 對立이라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 - 이런 觀點에서 北韓의 自主路線을 分析하는 態度가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과 그 展望을 考察하는데 있어서 一次的인 重要性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우선 「外在的 要因」인 中·蘇關係를 現況과 展望으로 나누어 檢討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 경우 現況分析은, 中·蘇의 相互非難이 에스칼레이트되어 가는 狀況에 焦點을 맞추는 「表面上分析」과 中·蘇對立의 本質的인 側面을 澈底하는 「底流相分析」으로 区分해서 考察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中·蘇關係의 展望은, 어느 누구도 正確히 斷言할 수 없는 20世紀 最大의 수수께끼이다. 따라서 여러 歐美學者들의 見解를 分析하고, 그 結果를 整理해 보았다.

다음으로,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과 그 展望은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卽 基本方向을 北韓의 對中·蘇關係에서 概觀한 後 「5大綱領」 淸명이 있는 後의 中·蘇의 反應을 分析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北韓이 아무리 自主路線外交를 淸명한다해도 基本的으로 모스크바와 北京의 行動半經論理를 無視할 수 없다는, 外交路線에 있어서의 大義名分의 側面과 實利的 側面을 北韓이 함께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主路線과 行動半經論理의 相關作用」에 대한 檢討는 지금 現在の 中·蘇·北韓 3角關係의 實狀을 科學的으로 糾明해 줄 수 있다.

요컨대,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은 「實狀으로서의 中·蘇 北韓 3角關係」와 그리고 이 3角關係에 根源的인 그늘을 던지고 있는 「美·蘇平和共存統制의 具體化現象」과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 및 이에 수반되는 「美·中·蘇相互交互離脫作用」의 테두리 내에서, 그 나침반의 進路는 「流動性」을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流動性은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에 必然的인 制約要因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北韓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的 緊張緩和構造의 非制度化, 非安定性」問題에서 導出되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展望은 역시 上述한 國際關係論的 次元에서 問題의 焦點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6.23 宣言」이 韓半島 內의問題를 國際關係論的인 外延性表現과 連結시키고자 努力한 果實이었는데 反하여, 北韓의 「5大綱領」은 그 意志의 表現에 있어서 韓半島 內의問題에만 閉翫는 國際政治統制에 대한 感覺의 吸收가 없었다는 難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1. 中·蘇關係의 現況

(1) 表面上分析

이 「表面相分析」은 그 資料를 73年8月25日字 新華社論文 「두개의 王朝를 잇는 검은 실」과 하루 뒤인 26日字 프라우다 紙 揭載의 알렉산드로프의 論文 「中国指導部の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礎的 方針에 대하여」에서 集中的으로 入手할 수 있다.

新華社論文의 對蘇非難의 要旨는 이러하다. 「帝政로마노프王朝와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王朝는 大로시아의 쇼비니즘과 侵略的인 擴張主義라는 한 줄기의 검은 실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틀리는 것은 後者의 王朝는 「社會主義」라는 은폐의 옷을 입고, 名実공히 完備된 社會帝國主義라는 事實이다」.

한편, 알렉산드로프의 論文은 毛沢東, 周恩來의 이름을 몇차례에 걸쳐 들먹이면서, 中共指導部の 反蘇·分裂主義 그리고 「2超大国」 理論에 의한 「緊張激化政策」을 맹렬히 非難攻訐하고 있다. 알렉산드로프는 毛沢東主義者의 「主意主義的 路線」을 다음과 같이 非難하고 있다. 「現代의 가장 重要한 問題에 대한 中国指導部の 態度는 社會主義諸国, 國際共產主義運動, 民族解放의 鬪士 및 世界의 緊張緩和와 侵略的 帝國主義勢力의 抑壓을 目標로 삼고 있는 모든 平和愛護勢力의 努力에 違反되는 것이다」.

新華社論文과 알렉산드로프論文의 相互非難은, 69年 봄의 國境衝突事件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그 熱度를 加하고 있는 것이다. 直接 武力에 呼訴하지 않는 舌戰이기는 하나, 中·蘇論爭이 점차

에스칼레트되어 가고 있다는 산 証擲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러한 舌戰이 最近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強度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소련側에서 볼 때에는 73年 5月の 姬爾飛中共外相의 유럽訪問 頃이며, 中共側에서 勢度를 加하기 시작한 것은, 브레즈네프書記長의 美国訪問 무렵이다. 이에 잇다른 全歐安保協力會議 第1라운드의 外相會議 그리고 소련·東歐首腦 크리미아會談등에서 表示되는 브레즈네프의 「兩面外交」가 積極化해 가는 程度에 正比例하여 中共의 對蘇非難은 그 熱度를 더 한층 加해간 것을 우리는 注目할 必要가 있다.

(2) 10全大會를 前後한 中·蘇關係

지난(73年) 8月 24日에서 28日에 걸쳐 개최된 中共 第10全大會에서의 周恩來政治報告는 對蘇非難의 總決算이라고 볼 수 있다. 周恩來는 다음과 같이 蘇 社会帝國主義를 非難하고 있다.

「소련修正主義支配集團은 흐루시초프로 부터 브레즈네프에 이르는 이 20年 동안에 社会主义國家를 社会帝國主義國家로 變質시켜 버렸다. 그들은 國內에서는 資本主義를 復活시키고 黨소獨裁를 實施하고, 各民族人民을 隸屬시켜 政治, 經濟, 民族의 矛盾을 점차 더 激化시키고 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侵略 占領하고, 中國과의 國境地帶에 軍隊를 集結시키고 蒙古에 出兵하고, 룬·놀름國集團을 支持하고, 폴란드의 勞動者의 造反을 彈壓하고, 에집트에 干渉하여 專門家를 追出당했으며, 파키스탄을 分裂키고,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轉覆活動을 자행했다. 이러한 一聯의 事

實은, 새로운 쯤아의 醜한 모양과, 그 「입방아에선 社會主義, 實際에 있어서는 帝國主義」라는 反動的 本質을 철저하게 露出시키고 있다. 그들이 나쁜 짓과 물엿치한 行動을 하면 할수록, 소련人民과 世界人民에 의하여 歷史博物館에 보내질 날은 한층 더 빨리 찾아 오는 것이다.

最近, 브레즈네프背反者集團은 中·소關係問題에 대하여, 中國은 世界情勢를 緩和시키는 데에 反付하고 있다느니, 中國은 中·소關係를 改善코저 하지 않는다느니, 頻繁히 하찮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도 世界情勢를 緩和시키고 싶다면, 왜 체코나 蒙古에서 軍隊를 撤収시킨다든가, 日本의 北方4島를 返還시킨다든가 하여 誠意를 表示하지 않는가? 中國은 다른 나라의 領土를 侵略 占領하고 있지 않다. 中國이 萬里長城以北을 全部 소련修正主義에 내놓지 않으려는, 우리들이 世界情勢의 緩和에 찬성하지 않고, 中·소關係의 改善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도 된단 말인가. 中國人民은 欺瞞당하지 않으며 주저하지도 않는다」.

이 周恩來의 對 소非難은 그대로 유엔에 飛火되어, 中共代表 喬冠華는 總會에서 周恩來政治報告의 內容을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中東戰事態를 둘러 싸고, 中共은 이른바 「2超大國理論」에 따라 맹렬히 소련의 帝國主義的 干涉行動을 공박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한편, 소련의 對中共非難은 前述한 알렉산드로프論文 하나에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前後에 걸쳐 맹렬한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73年 8月 25日자 알렉산드로프論文도 실은 今年 (73年) 7月 16日자 따쓰論評, 8月 7日자 알렉산드로프論文(프라우다紙), 8月 15日 알마·아타(까자크共和國)에서의 브레즈네프演說, 8月 16日자 따쓰論評, 8月 20日자 이즈베스찌야紙論文, 그리고 8月 24日자의 프라우다, 이즈베스찌야, 소비츠키야·로시아 등의 各紙, 「新時代」紙, 8月 25日의 赤星紙, 月刊誌 꿈무니스뜨 8月 第12号 등 一聯의 對中共 非難의 總決算의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共第10全大會 폐막후 얼마안 있어 開催된 第28次·유·엔總會에서 그로미코外相은 일관된 對中共비난연설을 되풀이하여, 中·소舌戰을 드디어 유·엔舞臺로 導入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一聯의 中·소論爭의 에스칼레이트는, 一部西方側 專門家들이 우려를 表示하는 第2次 珍寶島事件으로 發展할 것인가. 勿論, 周恩來의 政治報告에도 중래의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이라는 表現대신 「社會帝國主義의 奇襲攻擊」이라는 보다 강한 警戒論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同政治報告의 中·소關係末尾部分에서 제기하고 있는 「平和共存 5原則을 기초로 한 兩國關係의 正常化」項目과 맞췄시켜 考察해 볼 때, 예를 들면. 솔즈베리 등이 거론하고 있는 中·소의 軍事的 對決의 問題設定은 非現實的인 것이다. 알렉산드로프論文의 끝머리 部分에서 引用된 브레즈네프演說句節, 「레닌主義에 敵對하는 思潮로서의 毛沢東主義의 理論과 實踐에 대한 斷乎한 鬪爭을 對中關係正常化의 用意와 結合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原則的인 方針 即 第24次黨大會의 路線은 不變이다」라는 項目과

上述한 周恩來의 「平和共存 5 原則에 입각한 兩國關係의 正常化 提起」와 연결시켜 볼 때, 中·소 舌戰의 범위는 그 자체가 이미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卽 「統制된 對立」(Controlled Conflict)이라는 概念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경우 統制된 對立은 中·소 兩國의 國內政治의 意味內容에서 不可避하다는 면도 물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美·中·소 3極構造라는 國際關係論的 次元에서 論議될 수 있는 論理的 先後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卽 中·소가 戰爭狀態에 突入한다는 것은, 分明히 中·소 두 나라가 美國에 대한 劣等한 「스테이터스」에 들어 간다는 自白이므로 兩國은 자기네의 國家利益과 安全保障을 위해서 舌戰을 武力戰으로 擴大시킬 수 없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아이로니칼한 一致 「戰爭에로의 發展은 不願」이라는 共通分母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中·소 紛爭이 嚴格히 말해서 中·소 兩國의 直線論的 對立이 아니라, 美國이 自意던 他意던 깊숙히 介在될 수 밖에 없었다는 螺旋形的 狀況을 充分히 知悉하는 立場에서 닉신저 論理가 構築하고 있는 「同時多發論的 平和追求政策」을 와해케 하는 最大要因中的 하나인 中·소 武力戰事態는 「벨런서」의 役割에서 阻止해야 한다는 必要性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는 南·北韓의 平和維持努力과 直結되어 있고, 또한 序論에서도 言及하였듯이 北韓의 全般的인 路線과 政策에 重大한 影響要因으로 登場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對中·소 政策을 검토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中·소關係가 「底流相分析」에서 客觀的·科學的으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3) 底流相分析

最近에 急激히 더 熱度를 加하고 있는 中·소舌戰을 「表面上分析」에서는 주로 相互非難의 資料속에서 보아 왔다. 여기서는 中·소의 相互非難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本質的인 側面分析이라는 의미에서 「底流相分析」이라고 命名해 보았는데, 이것을 便宜上 세가지 側面으로 区分해서 考察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 側面은 서로 연결되어 交互作用을 營為하고 있음은 말한 나위도 없다.

가. 이데올로기의 側面

피츠제랄드가 拳論하고 있는 東·西카톨릭教會의 「大分離」에 비유할 정도로 中·소兩國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真理判定權」을 独占코저 애쓰는 모습에서 우리는 中·소對立의 이데올로기의 側面을 「레알」하게 볼 수 있다. 中共의 立場에선 소련의 브레즈네프體制를 레닌主義의 背反者로 낙인찍 으면서 「소련修正主義的 社会帝國主義」即 社会파시즘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反面 소련은 中共指導部를 「反소分裂主義的 毛沢東冒險主義者」로 非難하면서 社会主義理念을 離脱한, 毛沢東主意主義者들의 極小數集團體制로 浮刻시키려고 狂奔하고 있다.

中·소의 對立關係에서 이 理念紛爭은 歷史의 經驗이 表示하는 바와 같이 마물이 될 공산은 거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真理判定權是非는 비단 그것이 共產主義理念이라는 범주에 限定되지 않고, 人類社會의 오랜 발자취라는 文化史的 意味에서 볼 때, 異端의 斷罪는 異教徒審問보다 더 가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주의 概念으로 본다면 소련은, 「産業이 高度로 發展된 大衆消費社會」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近代化概念의 論爭범주에 中·소紛爭의 이데올로기의 側面은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의 「리베르만理論」과 中共의 「小兒全工業」은 社會主義的 近代化 即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路線의 差異點을 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角度에서 中共의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을 둘러 싸고 더 加一層 惡化된 中·소의 理念紛爭을 解決할 수 있다.

나. 直接的인 軍事對立의 側面

알렌 S. 화이팅教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林彪事件의 진수는 對美接近과 對소接近이라는 安保論爭의 結果였다. 하기가 이 安保論爭은 또한 이데올로기의 側面과 여러모로 聯關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평풍外交의 戰略的 次元」이 立証하는 것과 같이 中共의 對美接近은 長期的인 戰略的 面에서는 對소牽制를 위한 整地作業이었다는 데에 대체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69年 한해 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中·소國境衝突事件과 그 전해(68.8.21)에 있었던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侵攻 등 諸事態는 毛沢東主義者로 하여금 「이데올로기+安全保障」의 概念을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立場에선, 이른바 「美·中共結託」이라는 次元에서 虛脱感을 맛 보았을 것은 틀림없다. 72年 2月 28日의 「닉슨·周恩來聲明」에 나타나 있는 中共의 霸權主義 排擊은 對소牽制를 意識한데서 나온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次元에서 브레즈네프가 주장하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에 대한 論難은 說明될 수 있다.

하지만 中·소國境에 있어서의 武力增強의 意味內容은, 純粹한 軍事的 次元에서 論議될 性質의 것은 아니고 요컨대, 軍事力을 「바아게이딩·파워」로 行使하여 소련이 主張하는 平和共存시스템에 中共을 끌어 들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파워·폴리틱스」라는 國際關係論的 論理에서 解釈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 「파워·폴리틱스」의 側面

美·소平和共存體制의 具體化段階와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가 招來한 美·中·소 3極構造가 「레알」한 國際政治의 構造的 論理를 代辯하는 狀況에서 中·소兩國은 그 表現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真理判定權是非」이건, 「이데올로기+安全保障」이건 間에 이제 그 焦點을 多極構造의 具體的인 展開에 맞출 수 밖에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브레즈네프構想」에 부각되는 「兩國外交의 세일즈맨姿勢」와 「周恩來디자인」에 表示되는 「現實主義外交」는 아이로니칼하게도 「닉슨저論理」의 居仲 調整에 의해 相互非難을 되풀이 하면서도, 決定的인 行動으로 나가

지 못하는 制約要因을 서로간에 잉태케 된 것이다. 「不等辺 3角形」에 比唯되는 中·소의 不等辺關係가 短·中·長期的으로 어느 時期에 等辺化될 수 있는지의 与否에 中·소의 「統制된 對立關係」가 그 向方을 決定받을 것이라는 데에 問題의 焦点이 있다.

2. 中·소關係의 展望

中·소間의 「緊張高調」를 展望한 로버트 W. 바아네트의 所論은 理致에 當지 않는 것 같다. 即 「中共이 美国이나 日本과 軍事的 性格의 協定을 志向할 움직임」이라는 前提下에 緊張의 銳角化를 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信念」의 次元에서만, 앞으로의 中·소關係의 展望을 觀測한다는 것은 너무나 平板的인 思考方式이다. 「中·소關係는 더 惡化될 것」이라고 展望하는 브제진스키教授의 所論은 적어도 軍事戰略的 次元에서는 理解가 가지 않는다. 예컨대, 「中共의 核戰力の 成長과 相應하여, 中共에 대한 소련의 敵意와 憂慮는 그 強度를 더 해 갈것」이라는 展望은 論理的 根拠가 희박한 것이 아닐까? 70年2月 레어드 美国防長官의 年次報告에 의하면 75年頃엔 中共이 ICBM 10 내지 25基를 實戰配備한다는 것이다. 이 配備가 完了되면 現在 進入路에 막 들어간 美·中·소의 3極体制는 定着化될 公算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社会体制를 달리하고 있는 美·소間에서 60年代에 美·소平和共存体制를 構築할 수 있었고, 72年5月 SALT 第1라운드協定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中·

소間에도 「第2의 美·소平和共存体制縮少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社会体制가 相異하고 軍事力의 패리티가 不完全하나마 維持될 수 있다는 事實이 平和共存의 培養土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推論에서 中·소關係의 「緊張高調—惡化」라는 展望은 論理性을 欠如하고 있다.

다음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性」이라는 展望과 「最少限度의 國家關係改善」이라는 向方測定사이에는 事實上 同一文脈에서 觀測할 수 있는 性格을 지니고 있다. 端的으로 말해서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性은 時間의 템포는 遲遲하나마 궁극적으로 그 行先地를 最少限度의 國家關係改善쪽으로 잡을 것이며, 急轉直下하는 事態——極端的인 例로서 戰爭勃發경지——에로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論者」인 피츠제랄드가 例示하고 있는 東·西카톨릭教會의 「大分離」(1054년부터 始作됨)는 現代에 와서는 東·西敎皇頂上會談도 가져 和解氣運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中·소關係가 이 「大分離」만큼 그 慢性的 持續性을 長期化할 展望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같은 「持續論者」인 도메스가 代辯하고 있다. 卽 毛沢東死後의 「解決到還希望」을 비추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中·소關係의 展望은 이미 이 데올로기次元에서 論議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點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國家 대 國家의 次元에서 그 行先地를 問議받을 것 같다. 이러한 平和共存에 입각한 關係正常化의 呼訴와 呼応은 실제로 지난 72年 봄 毛沢

東과 브레즈네프의 演說에서 오고 갔다. 그리고 前述한 周恩來 政治報告와 알렉산드로프論文에서도 아직은 가느다란 실오라기의 意思表明이기는 하지만 分明히 平和共存論理에 입각한 國家次元에서의 關係改善문제가 言及되고 있다.

3. 北韓의 對中·소政策의 基本方向 事例分析

基本的으로 北韓은 中·소의 「統制된 對立關係」에도 不拘하고 소련과 中共의 兩國에 대해 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키고저 하는 基本方向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態度는 언필칭 北韓의 「自主 路線」의 對外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그 傾斜度는 親中共쪽으로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소련의 關係도 友好的으로 持續코저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對中·소等距離外交」에서 자기 實利를 追求코저 하는 軸에서 이다. 그러나 北韓의 對中共密着度에 비해 모스크바와의 關係가 상당히 微妙해 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것은 결국 소련이 「두個의 韓國論」에 입각하여 對韓國接近을 試圖코저 하는데 대한 北韓의 反應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北韓이 對中·소等距離外交라는 基本方向에 입각하면서도 北京·平壤간의 密着度を 더 돈독히 하고저 努力하는 姿勢를 對 소關係와 比較하여 檢討하기로 하자. 이 경우 몇가지 事例分析이 必要할 것이다.

① 1971年7월에 平壤에서는 소련 및 中共과의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 10 周年記念」行事가 各各 開催되었다. 소련에서는 7 月 5 日 마주로프党中央政治局員兼第 1 副首相을 團長으로 하는 大型代表團을 北韓에 파견하였으나, 北韓은 自己側 代表團을 모스크바에 파견치 않았다.

이에 反하여 中共·北韓간엔 大型代表團이 相互 交換되었다. 即 中共에서는 7 月 10 日 李先念党中央委政治局委員兼副首相, 李德生党中央委政治局候補委員兼中共軍總政治部主任등이 인솔하는 大型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했다, 그리고 北韓에서도 金仲麟党中央委委員兼中央委秘書를 團長으로 하는 大型代表團을 中共에 파견하였다.

- ② 71 年 11 月 18 日의 中共核實驗成功을 祝賀하여 金日成이 直接 20 日에 毛沢東, 周恩來에게 祝電을 보냈던 것에 비해서, 소련의 自動惑星間스레이션이 처음으로 火星에 軟着陸을 成功 (71.12.2) 시킨데 대해 金忠三工業科学院長이 祝電을 보낸 것은 對照的이었다.

上述한 두가지 事例만 보더라도 北韓이 基本方向에서는 對中·소 等距離外交라는 論理에 따라 中共과 소련 兩國에 대해 계속 友好關係를 維持코저 하면서도 그 「웨이트」設定에 있어서는 역시 北京·平壤간의 密着度를 더 굳히고저 努力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中共에 비해 對北韓影響度에 있어서 「세컨드·랭킹」에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다음으로 中共·北韓의 密着關係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美·中共接近에 대한 北韓의 肯定的인 評價와 經濟協力協定·軍事援助協定을 각각 締結했다는 사실이다.

金日成은 71年 8月 6日 시하누크公歡迎平壤市民群衆大會席上에서 이른바 「白旗論」을 표방, 中共側의 勝利로 美·中共接近을 평가했다. 그런데 注目할만한 사실은 이 評價 직후인 8月 15日과 9月 6日에 각각 北韓이 中共하고 經濟協力協定과 軍事援助協定을 체결했다는 點이다.

요컨대, 北韓이 美·中共接近에 대해서 積極的인 評價를 表明해 준데 대한 代價로, 北韓側이 中共으로 부터 具體的인 軍事的 保證을 받아 왔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와 實利追求의 相互關性」을 클로즈·업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相互關性은 예컨대 하아딩教授의 概念으로 풀이하면 「R 因子(革命志向性)+ P 因子(現實的인 實利追求)」의 密着性을 着眼케 한다. 따라서 「北京·平壤간의 密着度強化」라는 側面은 R 因子와 P 因子의 兩側面에서 아울러 銳意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問題把握態度는 결국 北韓의 對中·소政策의 基本方向과 實際的인 具體化過程을 分析하는데 重要한 「틀」이 되는 것이다.

4. 最近 北韓의 對中·소關係 反應度 測定

北韓의 金日成은 이른바 「祖國統一 5大綱領」을 내놓은데

대하여, 中共은 즉각 新華社通信과 人民日報를 통해 公式으로 金日成의 主張에 대해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했다. 즉 周恩來總理는 말리 國家首班이며 政府總理인 「무싸·뜨라오레」大領이 73年6月 24日 저녁 北京에서 개최한 答禮宴會에서 다음과 같이 言明했다. 「김일성은 어제의 중요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전체조선인민의 강력한 念願을 반영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方針과 다섯가지 방안을 내 놓았다. 北韓政府의 이 새로운 발기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조선반도에서의 緊張狀態의 가일층의 緩和를 진실로 도울 것이다.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 발기를 열렬히 환영하고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 」

이에 反해 소련은 따쓰通信으로 잘막하게 「軍事的 對峙의 解消·緊張狀態의 緩和」등에 관해 評價없이 報道한 것에 불과했다. 즉 73年6月26日 소련駐在 권희경大使가 코시긴首相을 訪問, 金日成의 演說全文을 傳達했는데, 코시긴은 관례적인 支持만을 보냈을 뿐임을 그 文脈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注目을 끄는 事項은 周恩來의 熱烈한 支持聲明에는 보이지 않는 句節이 있다. 코시긴은 이렇게 덧붙였다. 「극동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

다음으로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報道機關의 引用面에서도 中·소의 反應度를 점칠 수 있다. 前述한 周恩來의 支持聲明을 비롯하여 그 後 계속 개최된 行事(例; 7·4 共同聲明一周年記念; 中共·北韓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締結 12周年記念宴會등)에서 「5

大綱領」에 대한 熱烈한 支持가 줄곧 表明되고 있는데, 이 報道는 中共의 公式報道機關인 「新華社通信에 의하면」 하는 前提가 에누리 없이 붙어 있다. 이에 反해 前述한 柯西긴 首相의 담담한 支持聲明을 비롯하여 소련에서 開催된 여러 論評과 行事 (例; 태닌共靑機關紙 「꿈소물쓰까야 프라우다」의 論評; 소련交通部第1中央臨床病院에서 개최된 朝鮮人民과의 聯帶性集會; 朝소親善協會創設15周年記念集會등)에서 거론된 報道는 한결 같이 「모스크바에서의 報道에 의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만 北韓 「로동신문」(73年7月17日자)은 5大綱領을 支持하여 프라우다紙가 論評을 發表했다고 하면서 「따쓰通信에 의하면」하고 시작되어 있다. 그런데 「로동신문」에 轉載된 프라우다紙의 論評도 그 前後文脈으로 보아 前述한 「軍事的 對峙狀態解消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緩和」등에 관한 73年4月10日자 「5個項方安」을 主로 強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이러한 反應의 明暗度는 대충 우리가 짐작한 대로이다. 그것은 73年2月달부터 北韓이 巡訪外交를 1個月余에 걸쳐 展開했는데, 그 때의 狀況을 分析해 본 結果 대체로 予測이 可能했기 때문이다.

소련과 中共에 대한 巡訪外交는 2月9日부터 3月19日까지 許 外交部長이 인솔했었다(이 밖에 소련에는 金東奎勞動黨中央委黨 秘書, 中共에는 黃壯 最高人民會議議長이 들렸음). 이때 許 一行은 中共에서는 「駐韓유·엔軍에서 유·엔의 帽子를 벗기는」

問題등 北韓의 일관된 主張을 全幅的으로 支持받아 共同聲明을 發表했는데, 소련에 가서는 共同聲明을 얻어 내지 못했다는 事實 (이 밖에 東歐圈에서도 체코를 除外하고는 모두 共同聲明을 받아 내지 못했음)에서도 이미 우리는 中·소의 反應度를 짐짓 予想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73年 4月 10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2次會議에서 北韓이 소위 「軍事的 對峙狀態解消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緩和」등에 관한 「5個項方案」을 世界各國議會와 政府에 發送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北京에서는 즉각 이를 支持한다는 政府回答이 있었지만, 모스크바의 경우 公式聲明은 없었고 다만 소련의 雜誌에 실렸다는, 그것도 北韓의 中央放送報道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6月 23日의 金日成提案 즉 「祖國統一 5大綱領」 천명에 대한 朝日新聞의 모스크바特派員報도를 引用해 보면, 소련의 北韓 및 韓國에 대한 態度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杉田(스기다)特派員은 모스크바發 23日 記事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소련은 도이취問題에서 東西獨並存의 길을 認定했는데, 北韓의 경우는 東獨만큼 소련의 影響力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韓半島問題에 「獨逸方式」을 強要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련은 北韓의 立場을 原則的으로는 支持하면서, 한편 韓國하고도 接觸을 가지므로써 「南」에 대한 影響力을 強化하여 事態의 歸趨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소련은 北韓의 黨·政府要人과의 緊密한

接觸과는 달리 最近 현저해 진 것은 소련의 韓國에 대한 「門戶開放」의 움직임이다. 5月末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演劇藝術協會會議에 韓國의 演劇人이 招待되었으며 또한 8월에 모스크바에서 開催될 「유니버시아드」大會에도 韓國選手團의 參加가 거의 確定的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련·韓國關係의 展開는 韓國側으로 본다면 對共產圈接近을 試圖하는 朴大統領政府의 「外交的 成果」임과 동시에 소련으로서도 韓國에 대하여 유연한 姿勢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해야 할 點은 北京·平壤간의 密着度도 막상 國際情勢의 현상에 비추어 볼때 「델리게이트」한 面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北京政府는 72年 2月の 尼克森訪中時에는 北韓의 許 外相이 韓國에 제의한 「8個項平和統一方案」을 全幅的으로 支持한다고 천명했다. 이 「8個項平和統一方案」에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의 폐기가 명확히 挿入되어 있는데, 73年 2月の 第2次美·中共共同聲明에는 일체 이것을 不問에 붙이고 있으며, 美軍의 台灣으로 부터의 撤收만을 決定한것 뿐이었다.

요컨대,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소련과 中共의 反應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中·소對立關係라는 軸에서 보아야 할 것 이며, 또한 國際權力政治의 力学關係라는 次元에서 이것을 풀이해 야 할 것이다. 하기야 中·소對立關係의 軸도 소련, 中共의 對內的인 政治的 意味內容面을 일단 사상한다면, 基本的으로 國際 權力政治의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라는 力学關係에서 相互交互

離脱하는 立場에서 풀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련과 中共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實質的인 態度를 檢出하는 分析들도 당연히 이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 될 것이므로 이 觀點에 입각해서 中·소의 對韓半島政策의 實質을 파헤쳐 보는 態度가 北韓의 對中·소關係를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결국 「5大綱領」에 대한 上述한 中·소의 反應은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라는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國際政治的 感覺의 必要性을 提起케 한다. 이 多極化構造時代에 佇立한 우리는 「브레즈네프構想」이나 「周恩來디자인」 그리고 「닉신저論理」등에서 表出되어 나오는 國家利益追求의 外延속에서 握手를 交換하는 「아리송한 微笑들」을 자주 본다. 소련과 中共의 對韓半島政策도 이러한 力学關係의 次元에서 觀測해야 客觀性을 띌 수 있다. 이제 平和共存의 論理的 構造는 事實상 中共이 對소非難用으로 삼을 利用物은 되지 못하고 있다.

問題는 바로 여기에 있다. 北韓의 世界保健棧構加入問題에서 소련이 시사하고 있는 「두개의 韓國」觀은 美·소平和共存体制라는 큰 틀에서 觀照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의 具體的 表現일진대 韓國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聲明」이나 이에 맞서는 北韓의 「祖國統一5大綱領」천명에 대해 그 어느쪽을 강력히 支持한다는 검사를 보이지 않고 다만 「緊張狀態의 緩和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정도의 따쓰通信發...記事는 소련의 韓半島政策에 대한 基本姿勢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서 「유럽의 現狀固定化

政策」의 延長線上에서 中·소關係의 國家次元에서의 平和共存論理를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 소련의 基本的인 아시아의 志向인 것이며, 이러한 소련의 世界戰略的 構造에서 볼 때 소련은 「韓半島의 分斷制度化」를 바랄 수 밖에 없다는 論理가 된다.

요컨대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對中共戰略의 一環으로서 策定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對中共牽制策인 日·소平和條約 締結推進問題와 깊은 聯関을 맺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日·소關係正常化期待라는 軸에서 볼 때 소련은 中共의 對北韓影響度를 加급적 견제하여 最少限 北韓의 對소, 對中共等距離姿勢를 굳히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日·소間의 對話속에서 日本의 對北韓接近을 더 促進시켜 줄 要因의 하나로 登場케 될 것이다.

다음 中共의 反應은 앞으로 계속 北韓側 主張의 全幅的 支持라는 一刃倒政策으로 나갈 것인가. 적어도 소련에 대한 核戰力의 相對的 패리티가 이루어질 時點에 가서는 그리고 美·中共의 和解가 具體化될 段階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外交構造의 論理를 中共外交의 P因子에서 檢出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라든가 日·中 國交正常化등이 長期的인 戰略的 비전面에서는 對소牽制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短期的인 戰術的 마누버링面에서는 國內 經濟建設의 需要對象國創出이라는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한 林彪事件이 미스터리로 그치지 않고 中·소對立關係라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라는 局面에서 理解가 된다면, 앞으로의 中共外交는 종래에도 그랬드시 「革

命的 宣傳」의 象徵操作은 表面的으로는 되풀이 될 것이나, 그 實狀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行動化·具體化시킬 立場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번 10 全大會의 權力構造에서도 立証되듯이 R 因子는 P 因子와 抱擁關係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周恩來디자인은 여전히 重要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中共外交의 向方은 좋던 곳던, 平和共存外交論理를 採択하여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問題는 이 平和共存外交의 論理的 構造를 受容할 수 밖에 없는 中共이 가까운 時日內가 아니더라도 소련과의 國家關係次元에서의 關係正常化希求를 어떤 方式으로 具體化시키고자 할 것이냐 하는 點에 있을 것이다.

5. 北韓의 對中·소政策의 展望

「北韓의 對中·소政策의 展望」을 觀察하려면 韓半島의 戰爭 狀態終結措置 即 「休戰協定の 平和協定化」라는 中共의 基本的인 念願과 소련의 「現狀態로서의 韓半島의 分斷制度化追求」라는 두가지 主張의 相馳點 分析이 重要한 鍵잡이가 될 것이다.

基本的으로 北韓의 對中·소政策은 그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에서 노상 主張하는 것과 같이 中共과 소련 兩國에 대해 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킨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겠으나 「4 章」 「5 章」에서 자세히 分析된 結果 展望될 수 있는 事態는 「親 中共密着度」는 當분간 유지될 것이며 「모스크바·平壤」의 關係는

다분히 疎遠해 질 수 있는 諸要因을 包容하고 있음을 觀察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北韓의 對소政策的 展望은 北韓이 「5大綱領」에서 표방하고 있는 韓半島內的 問題解決의 패턴을 그대로 옹고집할 때 점점 더 어려움을 안을 것이고 따라서 모스크바·平壤의 關係는 漸次 疎遠해져, 그 갭이 커갈 것이 予測될 수 있다. 그것은 소련의 對韓半島戰略이 「現狀으로서의 韓半島의 分斷制度化」에 있는 것 만큼 「두개의 韓國論」을 모스크바가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는 外交論理的 歸結때문이다.

다음 中共과 北韓의 關係는 이데올로기의 側面이나 實利追求的 側面에서 모두 지금 現在로서는 密着되어 있기 때문에 「北京·平壤간의 密着度」는 短期的인 次元에서는 더 強化되어 나갈 것이 展望된다. 北韓이 主張하는 「先在韓유·엔軍撤収·後유·엔加入提案」은 中共자체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도 利害關係가 完全히 一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韓半島에서 戰爭狀態終結措置 即 休戰協定の 平和協定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역시 北韓과 中共사이에는 赤裸裸한 實利追求面에서 「커뮤니케이션」이 疎遠해 질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할 수 있다. 즉 休戰協定の 平和協定化라는 問題는 결국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뜻하는 것인데, 中共으로서 이 目的만 達成되면 자체의 安全保障을 위한 「꼬르동·싸니메에르」는 設定되는 것 만큼 北韓이 實質적으로 노리고 있는, 駐韓美軍撤収에 대

해서는 對소牽制와 對日抑制라는 立場에서 否定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駐韓美軍의 完全撤収가 안겨다 줄 「真空地帶의 埋沒必至論」에 따른 소련의 傳統的인 南進政策遂行과 日本의 大陸政策企圖로 韓半島가 소련이나 日本 影響圈으로 完全히 陷入되는 것을 中共은 두려워 하고 있다. 中共의 立場에선 韓半島는 소련보다 훨씬 더 자체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鹵補車關係에 있다고 切感하고 있다. 이러한 次元에서 이른바 「平和로운 環境地帶 韓半島」의 浮刻을 國家利益追求上 中共은 念願한다는 論理的 展開는 充分히 可能하다.

하나의 假定에 不過하지만, 키신저美國務長官의 유·엔總會에서의 記者會見(9.26)에서 시사를 받는 것과 같이 萬一의 하나라도 키신저·周恩來 第2次共同聲明에서 유·엔軍司令部의 解体問題가 暗黙的인 諒解하에 駐韓美軍의 存続을 合法的으로 維持하는 線에서 그리고 南北韓유·엔同時加入에 대한 中共의 受動的인 默認이라는 英글에서 妥協이 이루어 진다면 바로 그 時期가 北京·平壤간의 密着度에 금이 가는 始發點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妥協이 언제 어떻게 具體化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現在로서는 斷言키 어려운 形便이다.

아뭏든 北韓의 自主路線에 表現되어 있는 「對中·소等距離外交」——이 基本政策方向의 具體的인 追求는 中·소의 「統制된 對立」關係와 「美·中·소3極体制의 相互交互離脫作用」으로 말미아마 「꿈된 旅程」을 밟을 것임은 異論의 余地가 없을 것이다.

第三章 中共, 蘇聯, 北韓 三角關係 變化趨勢가 北韓의

對自由國家政策 및 對南政策에 미칠 영향

1. 美國, 日本에 對한 北韓의 立場

韓半島를 위요한 強大國들이인 蘇聯, 中共, 美國, 日本들간의 關係改善은 北韓으로 하여금 美國과 日本에 對한 立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 美國에 對한 北韓의 立場

北韓의 對美政策은 中共과 더불어 強硬一辺例로 一貫되어왔다.

60年代는 對美敵對視政策의 絶頂이었다고도 할수있다. 이는 1956年 소련共産黨 20次黨大會를 契機로 소련을 비롯한 東歐羅巴共産國家들의 美國과의 平和的共存과 相互協力路線과는 對照的이었다.

그러나 70年代에 中共과 美國 또는 日本과의 急激한 關係改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北韓을 매우 당황케 하였다. 이는 北韓과 함께 對美敵對強硬路線으로 結合되었던 中共의 갑작스런 態度變化때문이었다. 北韓으로서는 中共의 對美接近政策에 對해서 매우 못마땅히 생각하나 現實的으로는 이를 肯定的인 面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美國의 對中共敵對政策에 對한 總破産으로 그리고 中共人民의 反美鬪爭에서의 승리라는 側面으로 美國의 中共接近政策을 풀이하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 72年 2月 닉슨北京訪問과 共同 Kommunike에 대한 北韓側反應으로서 72年 3月 4日 勞働新聞 社說에서는 「이번에 닉슨이 直接 제발로 中國에 찾

아가서 中国과의 一連의 關係를 改善하기 爲한 것은 오랜 期間에
실친 美帝國主義者들의 中国에 對한 封鎖孤立政策의 總破綻을 意味
하는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한편 共同컴뮤니케에 表現된
平和共存의 五大원칙을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撤収問題와 自主
的平和統一을 爲한 마치 中国人民의 強力한 支授인 것처럼 評價를
하고 있다. 中共의 美接近을 契機로 北韓의 對美政策과 그 立場은
72年 5月 美國의 솔즈베리가 北韓을 訪問하고 金日成과 面談한
內容에서 찾아볼수 있다. 인터뷰內容에서 金日成은 北韓人民들은
反美感情이 매우 높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데 이는 美國이 한반
도를 侵略한 侵略者이고 6.25 戰爭때 많은 被害를 加했기 때문이
라고 그 原因을 말하면서 世代는 바뀌고 있으나 戰爭目標은 變하
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對美關係는 改善되는 것을
希望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全的으로 美國態度에 달려있다는 식
으로 그 責任을 전가시키는 態度를 보였다. 卽 「우리나라와 美
國의 關係는 全的으로 美國政府의 態度에 달려있다. 美國政府가
우리나라에 對한 政策을 改竄한다면 우리도 美國에 對한 政策을
바꿀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政策變化를 提示하
고 있다.

첫째, 統一問題에서 自主的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內政干涉을 中
止할것.

그러기 爲해서 美軍이 U. N軍의 看板下에 南朝鮮에의 駐屯을
종식시킬것.

둘째, 日本軍國主義再生을 도와주지 말것

셋째, U. N 에서의 北韓에 對한 不當한 立場을 버릴것 等の 條件을 提示하고 있는데, 이러한 前提條件의 解決이란 美國의 政策變化가 없는한 北韓의 對美立場은 바꿀 수 없다는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根本的인 政策變化가 없는 狀況下에서도 制限된 範圍에서 記者를 비롯한 僞別的 人事들의 相互來往이 必要하다는 것을 괴력하면서 美國과 北韓住民들간의 理解促進을 爲해 積極 推進시킬것을 希望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이는 비록 美國의 言論界의 한사람과의 對話이지만 美國에 對한 北韓의 政策과 基本立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 程度나마 金日成의 發言은 分明히 中共과 美國과의 接近에 대한 反應이라고 볼 수 있다. 反美鬭爭의 本拠地였다고도 할 수 있는 中共의 對美政策變化는 아무리 北韓이 自主路綫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金日成이 말한 바와같이 從前의 強硬策과는 달리 美國과의 關係는 根本的인 利害相衡이 있더라도 人事交流를 비롯한 部分的인 交流를 希望하고 있으며 점차 中共과 美國의 接近度의 深度에 따라 北韓의 對美政策과 立場은 變化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日本에 對한 北韓의 立場

北韓의 日本에 對한 政策과 立場은 日本内の 理念과 政治體制와는 별개로 日本과 韓國과의 關係 또는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에 따라서 北韓의 立場을 달리해 왔다. 1965年 韓日間の 基

本條約이 締結됨에 따라 北韓의 對日政策은 強硬路線으로 轉換되었으며 從前의 對日親善關係를 希望하던 路線과는 根本적으로 달라진 셈이다.

韓日條約 締決後 日本의 南韓과의 經濟的協力關係가 깊어 지자 韓日條約廢棄와 韓國에 對한 經濟協力을 中止할것을 要求하며 日本과 北韓과의 關係改善도 이를 前提로 提示했던 것이다. 特히 69年度의 닉슨 사또間的 共同콤뮤니케는 北韓으로하여금 對日強硬路線으로 치달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70年 11月 北韓勞動黨 五次黨大會의 金日成報告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同報告에서는

- ① 日本軍國主義再侵策動을 容納치 않으며 그와 끝까지 鬪爭할것.
- ② 韓日條約을 廢棄시키기 爲하여 日本人民과 亞細亞의 反帝力量과 團結하여 끝까지 鬪爭할것이라 하였고 또

「. 日本軍國主義侵略性을 보지않고 그와 鬪爭하지 않으며 日本反動政府를 美化하거나 그와 가가이 한다면 그것은 亞細亞에서 이 戰爭의 危險을 더욱 增大시키며 그 海外膨脹을 助長하여주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亞細亞에서 美帝의 指揮를 強化하여주며 全般的 反帝鬪爭을 弱화시키는 結果를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972年 9月 日本首相인 다나카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北韓의 對日政策이 部分的으로 修正되었다. 卽 다나카 中共訪問以前의 北韓의 對日政策과 그 立場은 72年 1月 日本 요미우리新聞記者와 金日成間的 對話와 北韓對外文化連絡協會代

表団과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団 사이의 共同声明 그리고 同年 六月 日本 共明党代表団의 平壤訪問과 關聯한 共同声明 等等에서 表現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日本政府로 하여금 北韓에 對한敵對視政策廢棄

둘째로, 韓日條約廢棄

셋째로, 南韓再侵策動中止 등을 들고 있으며, 그러나 北韓과의 關係改善 國交正常化는 相當한 時日이 設될것으로 보며, 그 時期까지는 可能한 範圍의 人事來往과 經濟文化的인 分野에서 交易과 交流 擴大를 希望하고 있는것이다. 特히 北韓에 대한 日本의 敵對的態度의 表現으로 69年 닉슨-사토의 共同声明을 들고 있으며 또한 在日朝鮮人(朝總聯系)에 對한 差別待遇, 民族權利無視, 그들의 自由로운 北韓來往의 不許등을 들고 있다.

72年 9月 다나카의 北京訪問에 對한 北韓의 反應은 中日關係의 正常化를 歡迎한다는 勞動新聞 社說에서 「中日關係의 非正常的인 狀態를 終結시키고 關係를 正常化한것은 中日兩國人民의 利益에 符合되며 亞細亞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寄與로 된다」고 지적한바와 같이 매우 肯定的이었다. 이와같이 中日間의 關係改善은 北韓의 對日立場에도 變化를 가져왔으며 日本과의 關係에서 敵對視政策 보다는 友好關係를 될수있는한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爲한 積極的인 제의들을 하게하였다. 特히 實現可能性이 없는 對日關係에 있어서 그 前提條件으로 삼았던 韓日條約廢棄等은 後退시키고 日本으로 하여금 南韓과 같이 同等한 待遇를

할것을 要求하고있다. 이에 對해서 72年 9月 金日成은 日本 마
이 니찌 新聞記者들과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이 表現하였다. 即 「北
韓은 첫날부터 비록 社会制度는 서로 다르지만 日本과 善隣關係를
맺을것을 希望하여 왔으며 지금도 두나라 사이에 非正常的인 事態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正常的인 關係를 樹立할것을 바라고있다. 日本政
府가 우리나라와 善隣關係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一辺倒政策을 쓰
지않고 朝鮮半島의 南北에 대하여 어떠한 侵略의性格도 없는 均等한
政策을 實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朝鮮의 統一을 促進시키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고 하면서 우선은 記者 技術者 各界 人事
來往과 經濟文化交流實施 및 在日교포(朝總聯系)의 民族的差別待遇를
버리고 그들의 權利保障과 北韓과의 來往의 自由를 強調하였다.

이처럼 北韓의 對日政策은 最近에 急激한 正常化를 希望하는 한편
日本의 對韓經濟協力을 侵略으로 規定짓고 이를 저지시키기 爲한 對
日接近을 積極的으로 시도하고있다.

北韓에서 願하던 北韓記者團이 日本을 訪問했고, 万壽台藝術團의 日
本공연이 實現되었으며 人事來往의 增加와 經濟交流가 急速屢로 擴大되
고있는 狀況들은 北韓의 對日政策의 積極性을 뜻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있다. 또한 日本內에서의 國會議員들을 비롯한 政界와 經濟界 및
社会 各界各層들에서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希望하는 傾向이 날로 增
大되고 있으며 中共과 소련을 통한 日本에 對한 友好的態도의 증용
등은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큰 影響을 미칠것으로 展望된다.

以上과 같이 中共 蘇聯에 對한 美國과 日本의 關係改善은 北韓측

으로 하여금 對日 對美政策에서 새로운 變化와 展望을 띠게하였다

2. 北韓의 對U. N 戰略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北韓의 對U. N 活動은 從前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積極성을 띠게되었다. 이는 U. N 內에서의 勢力판도에서의 變化 特히 自由中國을 代身하여 中共이 U. N에 加入하게 된데에 크게 基因된다.

72年과 73年の 兩次に 걸치는 大規模的 外交攻勢는 北韓의 國際的地位向上은 勿論이고 U. N 成員國들의 支援獲得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 이러한 結果는 今年 五月 U. N 傘下 專門機構인 世界보건 기구 (WHO)에 加入하게 되었으며, 한편 國際議員聯盟 (IPU)에도 加入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 N 傘下 資格을 獲得한 것이며 따라서 今年 가을부터 U. N에 그들의 代表團을 派遣하고 U. N 밖에선가 아닌 U. N 內에서의 對U. N 活動을 本格的으로 展開하는데 이르렀다.

今秋 第二十八次 U. N 總會에서는 南北韓同時招請이라는 從來의 仰韓側 提案이 아무런 修正없이 加결됨에 따라 北韓에서는 이에 政務院 副總理겸 外務部長인 許談을 代表로 三十餘名의 成員을 U. N 總會에 派遣하고 있다.

北韓이 對U. N 活動에서 追求하는 目標은 南韓赤化統一戰略의 一環으로서 特徵지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爲하여 첫째, 赤化統一遂行에 있어서의 最大의 障礙要素로 定하고있는 駐韓美軍을 撤去시키

고 UNCURK를 解体시키는데 있다. 둘째로는 U.N에 依해 樹立되고 認定된 韓半島에 있어서의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否定하고 나아가서는 北韓의 U.N合法性을 認定케 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두가지 基本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當面目標로서는 U.N機構를 通하여 이른바 平和的 自主統一을 이룩하기 爲한 所謂 与件과 環境造成(美軍撤軍을 뜻함)을 實現시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U.N總會를 비롯한 各種會議를 그들의 政治宣傳場으로 利用하려는 것이 그들의 態度라는것은 自明한 일이다.

(1) 對U.N態도의 變化

北韓의 對U.N態度變化는 1971年 第二十六次 U.N總會를 契機로 急變하였다. 卽 第25次 U.N總會까지는 U.N에 對한 敵對的立場과 韓國問題에 對한 U.N의 干涉排除라는 否定的인 態度로 一貫되었다. 이는 U.N内の 勢力關係가 共產側을 비롯한 그 영향하에 움직이는 勢力보다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西方側 다시 말해서 自由陣營의 勢力이 월등하게 圧倒하느라서 韓國問題를 U.N總會에서 討議한다는것은 北韓側에 不利한 結果밖에 나올수 없다느라서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統一問題를 U.N에서 討議하는것은 U.N憲章 第107條 第2條7項에 依하여 非法的인 것으로 主張하는 한편 U.N의 韓國問題討議를 反對하였었다. 그러나 71年 第26次 U.N總會를 契機로 南北間에 赤十字會談이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을 考慮하여 韓國側은 U.N에서의 韓國問題論議를 從前과는 달리 中斷케 하였는데 北韓側은 오히려 反對立場으로 기울어졌다.

即 從來의 韓國問題의 U . N 干涉排除라는 否定的態度에서 이제는 韓國問題의 U . N 에서의 討議라는 能動的態度로 바꾸어졌다. 이러한 北韓側의 對 U . N 態度變化는 첫째, 中共이 第 26 次 U . N 總會에 加入이 되어 中共의 發言權이 크다는것 따라서 U . N 內에서의 勢力 판도가 北韓側에 有利하게 變化되었다는것.

둘째, 分斷國들에 對한 現狀固定化라는 國際的인 추세에 따라 兩獨逸이 同時 U . N 加入으로서 同時承認이라는것 등을 감안하여 U . N 의 南北韓同時招請이라는 北韓側 意圖가 實現될 수 있는 可能性의 增大에 基因한것이다.

(2) 對 U . N 政策

北韓은 U . N 에서의 韓國問題上程討議라는 積極的인 立場으로부터 出發하여 다음과같은 戰略과 政策을 내세우고있다. 이는 27 次 U . N 總會에서의 알제리아가 中心이 되어 提出한 內容과 73 年 4 月 6 日 北韓最高人民會議 五期 2 次會議에서 採択하여 U . N 에 發送한 서한 內容에서 찾아볼수있다. 그를 몇가지로 간추려보면 첫째, 韓國問題를 반드시 U . N 에서 討議할것. 그러나 여기에서 北韓側의 態度는 統一問題는 民族自決에 關한 問題이므로 U . N 에서는 關與할 必要가 없으나 다만 U . N 은 自主的平和統一을 為한 條件 造成, 특히 自主的 平和統一에 對한 障礙要素를 除去케 하는데 U . N 의 機能이 限定되는것을 의미한다.

둘째, 韓國問題解決에 對한 U . N 役割期待, 이는 U . N 決議에 依해서 美軍을 主軸으로한 U . N 軍 韓國駐屯과 UNCURK의 韓國派

遣은 北韓側으로서는 U . N 에 對한 否定的態度를 자아내게 했으며 따라서 無原則하고 盲目的으로 撤去와 解体等を 호소하였다. 그러나 U . N 內의 勢力變化는 從來의 否定的인 方法과는 달리 U . N 기구와 機能을 通해서 이를 合法的으로 除去시킬수 있다는 判斷아래 U . N 役割을 期待하고있는것이다.

셋째, 駐韓美軍의 段階的撤去. 卽 從來까지의 北韓은 U . N 軍과 美軍이라는 概念을 區別하지않고 同一한 概念으로서 美軍撤収를 強力히 요구하여왔던것이다. 그러나 昨年 72次 U . N 總會에서 上程된 알제리案을 보면 U . N 깃발使用만을 禁止케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撤去를 主張하는 卽 駐韓美軍의 段階的撤去를 北韓側은 事實上 向調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側의 公式的인 文獻에서는 U . N 모자를 벗기고 美軍을 撤収시켜야한다는 表現을 볼수있다.

넷째, 韓國問題에 對한 U . N 決議를 既定事實로 認定, 北韓은 從來 U . N 에서 討議決定된 모든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 것을 一貫性있게 主張하여왔으나 73年 U . N 에 對한 備忘錄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代身 U . N 에서는 正當한 諸措置를 取해달라는것으로서 間接的으로 實質的 無効化를 劃策하고있다.

이는 從來의 決議 다시 말해서 北韓을 侵略者로 規定한 바탕위에 서 採択된 決議인 만큼 이를 根本的으로 無効化시키기 爲한 새로운 決議를 採択케 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므로 새롭고 北韓側에 有利한 決議採択으로서 過去の 것을 無力化시키자는 의도인것이다. 28次 U . N 總會에 提起한 共產側決議案은 첫째, 韓國統一問題는

民族自決의 原則에 基礎한다.

둘째, 7.4 南北共同聲明에 依한 平和統一이 이룩되기를 希望한다. 셋째, 韓國에 對한 外國干涉의 終結과 休戰의 永久平和에로의 轉換 넷째, 韓國單一 U. N 加入과 韓國統一에 有利한 條件을 造成시키기 爲해 UNCURK 解体를 決定하고 南韓에서의 U. N 旗 使用權利를 없애고 U. N 軍司令部 解体의 必要性認定과 外國軍 撤去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決議案은 北韓側이 U. N 에 期待하는 基本的인 內容들이다.

(3) 單一國號로서의 U. N 加入

U. N 加入에 對해서 北韓側은 統一되지않는 條件下에서는 即 分斷狀態에서는 U. N 加入을 拒否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東西 獨 同時 加入과 같은 南北韓 U. N 同時加入을 反對하며 또한 U. N 加入을 通하여 南北韓問題를 解決하려는 것도 反對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73年 9月 26日에 發表한 北韓側對 U. N 備忘錄에서 明白히 밝히고 있다. 첫째 南北韓同時加入은 하나의 民族國家가 國際적으로 두개의 國家로 公認되어 分裂이 永久的으로 固着 둘째, 두개 國家로의 固定化는 情勢安定이 아니라 恒時的인 긴 장과 戰爭의 火根만을 더욱 招來 셋째, 南韓政權은 外國에 依해 造作되고 維持되고 그의 植民地 軍事基地에 不過하므로 U. N 에 加入資格이 없으며 唯一한 合法的 國家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다.

넷째, U. N 南北韓同時加入案은 U. N 看板下에 分割統治하려는 帝國

主義의 統治手法이다.

다섯째, 北韓의 U. N 專門機構에 加入하는것은 政治問題와는 無關한 技術實務的協助目的에 있기때문에 이에 積極參加하는것이다.

여섯째, 東西獨의 U. N 同時加入은 두 獨逸國家가 完全平等한 主權國家로서 相互承認하고 U. N에 各各 加入하는데 完全合意를 본 것으로 韓國事情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일곱째, U. N 加入問題를 그 어떤 분쟁문제의 解決과 어느 한 民族의 內部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手段으로 強調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北韓은 U. N 同時加入을 反對하면서 統一되기前에는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聯邦體制로서 單一國號로 U. N 加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底意는 南北韓이 U. N에 同時에 加入하게 되려는 南北韓政權의 存立과 그에 對한 國際的 保障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들의 南朝鮮革命은 일단 포기하는 結果를 가져 오는것이다. 이는 南韓赤化戰略의 後退를 뜻한다. 그렇기때문에 聯邦制를 主張하며 U. N 同時加入을 反對하는것이다. 特히 看過할 수 없는것은 이번 에 發表된 對U. N 備忘錄에서 韓國은 合法政府가 아니며 U. N에 加入할 資格도 없고 反面에 北韓만의 唯一合法性을 主張하고 있는 點이다. 이는 中共이 國府와 같이 U. N에 成員國으로 되는것을 反對하고 國府代身 中共이 加入한 戰術을 北韓側도 適用시킬 可能性이 없지않다 이는 U. N 狀況이 지금보다 北韓側에 훨씬 有利한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때문에 그러한 속셈을 備忘錄에 비친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北韓側의 對U. N 戰略은 中共의 U. N에서

의 큰 影響力行使에 힘입은 것이다. 소련을 中心으로 한 東歐共產 國家들에 依한 U. N에서의 北韓支持同調는 中蘇對立과는 別個의 것으로 해당 國家의 수뇌들을 北韓에 초빙하여 그를 대대적으로 환 영하며 北韓側 의도를 설득시키는 등 차원높은 戰術로 巧妙히 誘 導하여 나가고 있다.

3 南北協商에 對한 北韓의 基本立場

最近에 中共 및 蘇聯과 北韓間的 關係變化는 對南政策 特히 南北協商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1966年 八月 十二日 自主路線을 宣布한 北韓은 모든 對外關係 는 勿論이며 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받지않고 自主的으로 解決할것을 強調한 바있다. 그러나 70年 代에 들어서면서 中.蘇關係는 보다 惡化되고 美國.日本.中共 또 한 美國.日本.蘇聯關係에 있어서 서로 追求하는 目的은 다르지 만 相當한 協調體制로 轉換되어가고있다. 特히 中共과 美.日間 의 急激한 接近은 北韓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北韓에서 主張하고 있는 自主的 또는 主体 및 民族自決云云은 그들의 主觀的인 希求에 不過하며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影 響을 排除할 수는 없는것이다.

北韓의 對南政策과 南北問題에 있어서 蘇聯과 中共間에는 一定 한 見解差異가 있는것으로 判斷된다. 特히 蘇聯側은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기보다는 南北韓을 現狀態로 일단 安定시키는것을 願하는것

같다. 그에 대한 증후로서는 1972年初 北韓 外務部長인 許談이 소련訪問 때 北韓의 立場에 對해서 完全合意를 보지못했으며 今年 (1973) 4月 6日 北韓은 北韓 最高人民會議 5期 2次會議에서 採択된 南韓에서의 外國의 內政干涉을 容許시킬데 對한 書翰을 소련政府側에 發送하였는데 소련은 그에 對한 아무런 反應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 對한 소련態도의 變化증세가 最近에 나타나고 있는바 한국의 芸術人 經濟人等의 入國을 許可하였을 뿐더러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에 南北韓同時招請(北韓은 不參)과 韓國人에 對한 態度가 柔軟해지고 있다.

소련의 東北亞集團安全政策은 韓國까지 包含한 善隣關係를 前提하고 있는고로 南北韓關係의 現狀打破라기 보다는 現狀固定化를 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6.23 宣言은 소련內에서 事實上 공명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소련과 北韓關係는 매우 友好的인것으로서 北韓에서 提唱하고 있는 自主的 平和統一方針과 外勢의 排擊이라는 主張을 正面으로는 反對할 수 없으며 消極的인 態度로서 表面上 支持할것이다. 특히 北韓이 中共에 보다 偏重하여 한반도問題 解決을 試圖하고 있다는것은 소련側으로하여금 後退케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中共은 소련과는 달리 北韓과의 關係가 더욱 密着되고 있으며 한반도해결에서의 北韓側立場을 積極支持하고 있다.

今年 4月에 發送된 北韓最高人民會議書翰에 對한 反應과 U. N 을 비롯한 國際機構에서의 中共의 發言에서 이를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中共自身이 소련과의 關係變化와 지금까지의 敵對視하여온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等の 不可避性은 中共으로하여금 韓半島 政策에 部分的인 修正을 加하게 하고있다. 이는 中共이 한반도 問題에 對해서 北韓側主張만을 支持한다면 對美 對日關係改善이 容易할 수 없는데 基因한것이다.

中共이 한반도문제에서 從前의 主張을 修正한 例로서는 周四原則을 들수 있다. 即 周四原則에 對해서 公式的으로 廢棄한 것은 없으나 事實上 無効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南韓에서의 美軍撤收問題에 있어서도 從前의 主張인 美軍의 無條件撤收와는 달리 U. N軍으로서의 駐屯만을 優先은 反對하고 있는것이다. 以上과 같은 蘇聯과 中共의 韓半島問題에 對한 움직임은 必然코 北韓의 對南政策과 南北對話에 투영되고 있다.

對南政策과 南北協交에 對한 北韓의 基本立場은 原則的으로는 從前의 立場과는 別로 다를바없다. 即 全朝鮮革命을 目的하고 있는 北韓은 統一에 있어서도 南韓革命을 통한 北韓旗下의 統一을 目標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南朝鮮暴力革命路線인바 그를 追求하는것을 基本으로하되 与件과 環境變化에 따라 統一戰線의 한 形態인 南北聯邦 또는 南北民族會議等으로 中間段階를 거쳐 赤化統一을 이루려는 것이다. 1971年 4월에 發表된 許談의 8個統一方案과는 달리 그간의 南北接觸과 7.4南北共同聲明合意에 基礎하여 今年 6月 23日 金日成은 自主的 平和統一에 關한 五大綱領을 發表하였다. 即 첫째, 南北韓의 軍事對峙狀態解消와

緊張狀態緩和

둘째,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的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셋째, 大民族會議召集

넷째,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名稱으로서의 南北聯邦制實施

다섯째, U. N에의 單一國號로서의 加入

이 五大綱領은 最近의 國際政勢의 變化와 南北關係를 그 나름대로 分析하여 내놓은 方針으로서 당분간은 이를 되풀이 主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그간 基本的인 北韓側立場을 밝힌바 있는데 (8. 28 金英柱聲明, 9. 9 節 金一의 報告 9. 26 U. N 備忘錄 10. 28 金日成演說) 다음 몇가지 側面으로 그들의 立場을 集約할 수 있다.

첫째, 現 우리政府와는 會談을 하지않겠다는것 이는 7. 4 南北共同聲明以前부터 항상 主張한바 있었으나 그간의 南北接觸過程에서 北韓側 要求대로 實現될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바라는 所謂 폭넓은 對話의 可能性도 보이지않고 韓國에서의 反共法撤廢 共產主義活動의 自由 政治犯釈放等 所謂 그들이 말하는 民主化實現이 不可能하게되므로서 現政權과는 對話를 하지않겠다는 立場인것이다.

둘째, 軍事問題優先解決

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 南北對話의 進展을 위한 先行解決條件으로서 내세운것인데 이는 다섯개 內容으로 되어있다.

- ① 武力增強 軍備競争中止
- ② 美軍等 一切의 外軍撤収

③ 南北軍隊十萬 또는 그 以下로의 減軍

④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中止

⑤ 南北間의 平和協定 체결

이러한 五箇原則主張은 北韓側에서는 從前부터 統一의 先行條件으로 主張한바 있는데 南北對話에서 다시금 되풀이 된것은 앞으로 北韓이 目的하고있는 南韓革命의 与件造成으로 볼수있다.

여기에서 U. N軍 撤収以前이라도 南北間의 平和協定締結要求는 中共의 影響을 받은것으로 본다.

셋째, 政治協商會議召集

政治協商은 南北調節委員會의 組織으로서 이를 代身코자 하였으나 그들의 戰術인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을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의 成員으로 하려는 시도가 失敗되므로 政黨 社會團體 代表者協商會議를 別個로 主張하게 되었다. 政治協商은 그들이 目的한 聯邦制實施의 基盤을 造成할 수 있으며 政黨 社會團體 代表로서 北韓을 支持同調하는 容共勢力이 參加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할 수 있는것이다.

넷째 南北合作戰術

南北合作은 그 範圍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外交等 모든 面에 設칠것과 어떠한 部分的인 合作을 먼저 한다는 것이 아니라 同時合作을 뜻하고있다. 이는 南韓의 國際協力關係를 沮害하고 相對的 異質性을 相互 否定케 하여 北韓勢力浸透를 容易하게 하려는데 있다.

以上과 같은 네가지의 北韓側 立場은 金日成이 提示한 五大綱領에 기초하고 있으며 五大綱領을 段階的으로 實現하는데 있다.

北韓의 對南政策에서 看過할 수 없는것은 지금까지 提唱해온 暴力革命論이다. 即 南韓의 混亂과 弱体化를 劃策하여 그들의 判斷에서 暴力革命時期라고 斷定하였을 때는 이미 準備된 武装力을 비롯한 可能的한 手段들을 動員하여 暴力革命으로 事態를 몰고갈것이다.

北韓의 對南政策과 南北對話의 基本立場은 國際的環境과 南北韓의 環境變化에 따라 可變性을 지니고 있으나 두개의 韓國으로서의 固定化는 北韓側으로서는 매우 不利한 展望이 予想되기 때문에 이를 決死反對할것이나 南北對話는 北韓側으로서는 繼續되지 않으면 안될 絶대적 必要性이 있으므로 一定한 時間이 經過되면 그들의 主張과 立場을 어느정도 굽힐수도 있다고 본다.

北韓의 態度變化는 相對性을 띄고있다. 이는 우리의 力量強化 即 軍事力의 南北韓均衡維持, 國際的協力体制의 強化, 政治, 經濟, 社會의 安定, 5.23宣言에 對한 國際的支持, 國民意志의 總和와 國論統一에 따라 可變性을 가지고있다. 또한 強大國들의 政策變化와 利益追求等으로 한반도의 이러 저러한 干涉 또는 南北韓에 對한 壓力과 脅容等으로 對南政策變化의 可能性도 있을수 있다.

第四章 우리의 對備策

1. 韓國의 對蘇 및 對中共政策의 基本方向

蘇聯 및 中共은 韓半島問題에 直接的으로 介入된 強大國들이다. 卽 蘇聯은 38度線 以北地域에서 軍政을 實施했으며 中共은 6.25動亂當時 戰爭에 參加한 나라로서 休戰當事者의 하나이기도 하다. 北韓은 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蘇라는 強大國의 比護下에 살아왔으며 그들과는 密着되어 있는 實情이라 하나 1950年代 中반기부터 表面화된 中蘇紛爭은 그 影響下에 있는 北韓으로 하여금 매우 困難한 立場에 놓이게 하였는데 한때는 蘇聯에 偏重 또는 中共에 偏重 하는等 右往左往하면서 自主路線이라는 것을 標 하지 않을수없었다 이 自主路線은 中蘇紛爭에 限해서만 中立的 立場을 取한다는 뜻이지 中蘇에의 依存의인 路線임을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明히 理念的인 面에서는 中共에 經濟 및 軍事實利的인 面에서는 蘇聯에 치우치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蘇聯 中共 北韓이라는 三角關係에서 볼때 같은 共產主義體制라는 點에서는 共通分母이나 北韓을 中心으로 中蘇間의 見解差異는 深한것으로 보인다. 이는 蘇聯과 中공의 世界戰略上의 異見으로서 美國과 日本에 對한 各己 立場이 다른데서 起因하는 것이다.

中蘇가 北韓과 密着되어 한반도에 直接的 間接的으로 큰 影響을 行使하고 있는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므로 우리로서는 이에 對

한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本來 中蘇에 對해서는 敵對
的인 立場이었으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東西陣營間的 共存 또는
協力體制로 履行하며 脫이데오로기의인 世界的趨勢는 우리나라의 對共
産圈政策에 投影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世界的 추세에 對해 能動的인 措置로서 非敵性共産國家들과의 關係改
善을 試圖했으며 今年 6.23 宣言에서는 그보다 一步 前進하여 社會主
義國家들과의 門戶開放을 宣布했다. 特히 여기에서 力點을 둔것은
中共과 蘇聯인 것으로 보인다. 卽 中.蘇와의 關係에서 무엇인가 改
善되지 않고서는 안될時期가 到來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北韓의 境遇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事情과도 恰似한것이다. 다시말해서 한반도 運命에 決定
的의 役割을 하는 美國 소련 中共 및 日本이라는 四大強國에 對해서는
南北韓 共히 從前과 같은 敵對的인 強硬政策을 繼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情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소련 및 中共과의 새
로운 關係를 하루빨리 摸索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여러가지 問題點
을 안고 있는 것이다. 對蘇中政策에서의 우리가 取해야할 立場은 短期
的인 것과 長期的인 것으로 区分할 수 있는데 爲先은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維持라는데 그 主眼點을 두며 相互 敵對的인 感情을
解消하고 理解를 增進시키는데 努力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기 爲하여
첫째로 中蘇와 北韓間的 相互關係를 充分히 把握하고 그들間的 利
解關係의 共通性과 相衝點을 찾아내 이를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활
용하여야 한다.

둘째로 中蘇紛爭의 結果가 한반도에 까지 미치지않도록 中蘇接近에서 이를 充分히 考慮하여야 하며 따라서 中共 蘇聯 어느 便에고 偏重되어서는 안된다. 中蘇紛爭에 對해서는 어디까지나 그들간의 問題로서 우리는 이에 對해 中立的인 態度를 取해야 할것이다.

셋째로 소련 中共 어느편에게도 領土的 軍事的인 讓步와 이를 提供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万若 어느 한나라에게 軍事基地 또는 戰艦寄港等を 許容한다면 南韓은 中蘇의 勢力부식을 爲한 角逐場으로 轉換될 可能性도 있다.

넷째로 相互 內政不干涉과 互惠平等의 原則에서 接近하여야 하며 어떠한 條件提示等이 許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다섯째로 中蘇에게 우리의 平和指向的인 立場을 充分히 說得시켜 南北間の 緊張緩和과 平和維持에 積極的으로 協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現在 中蘇와의 關係에서 아무런 對話의 通路가 없는 實情이므로 이를 開拓하는것이 急先務일 것이다. 이는 中共과 소련도 같은 立場일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2. 우리의 對北韓政策

北韓의 對南政策은 中蘇의 影響이 어느程度 作用은 하고 있으나 南韓革命을 통한 赤化統一을 追求하고 있는것은 틀림없다. 卽 現狀固定과 安定을 통한 南北韓統合이 아니라 現狀打破라는

革命路線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를 爲한 方向으로 對南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최근 南北對話에 對한 그들의 拒否聲明과 南韓에 對한 各種 宣傳 攻勢는 7.4 南北共同聲明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간 感을 주고 있다. 그러나 國際情勢와 國內의인 모든 事件은 暴力과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安定과 共存 또는 平和的競爭을 指向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北韓側이 現狀打破的인 態度를 取한다 하더라도 一定한 時期에 가서는 그 態度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相對的인 것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卽 國際的 環境이 우리의 事件의 變化에 따라 北韓의 態度轉換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미 南北關係에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여준 72年 7.4 南北共同聲明은 民族史的 側面에서 큰 意義를 가진다. 그 後 南北間의 接觸은 緊張緩和와 信賴의 분위기조성에 寄與한 바 컸다. 앞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南北對話를 再開토록 努力하여 南北이 敵對的인 姿勢에서 서로 信賴의 姿勢로 轉換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對北韓政策에 있어서의 基本은 如何히 北韓의 暴力革命論을 拋棄케 하고 南北韓의 平和的인 競爭體制로 誘導하느냐에 있는만큼 先決條件으로서의 긴장을 緩和시켜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國際社會에서 北韓을 孤立化시키는 政策을 지양하고 될 수 있는대로 自由世界에 까지 그들의 活動範圍를 擴大시켜 國際趨勢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日本을 비롯한 自由友邦과의 各種 交流를(軍事目的이 아님) 넓히도록 하는것도 한가지 方法이

될 수 있겠다.

南北共存을 維持하기 爲해서나 現狀打破的인 暴力的 方法을 拋棄케 하는것은 雙方間의 軍事力均衡에 달려있으므로 均衡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對話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爲해서는 우리의 主張과 더불어 北韓側 主張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國內外的인 條件과 環境造成을 이루도록 힘써야할것이다. 中蘇가 南北問題에 影響을 크게 미치고 있는 實情에서 우리의 對中 對蘇關係改善은 時急할 뿐더러 이를 北韓과의 接觸에서 도움이 되도록 活用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72年 6月 23日 南北韓이 共히 發表한 宣言과 綱領과의 對決이 國際社會에서 크게 展開될것이 予想되므로 이에 對한 各별한 對策이 樹立돼야 할것이다. 끝으로 共產國家들과도 交流할 수 있는 適應體制로 發展시키며 政治 經濟 社會 諸分野에서 民主化를 具現하고 安定된 環境을 이룬다는 것은 對北韓積極政策의 일부라고 할수있겠다.

